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14차, 칭의, 3번, 체계적 공식화와 입양, 1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정당화, 번호 3, 체계적 공식화와 입양, 파트 1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정당화 주제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혁적 이해를 검토한 후, 우리는 체계적 공식화를 계속하며, 이번에는 정당화의 기초를 살펴봅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에 대한 파노라마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구원의 필수 전제 조건인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그 필수적 결말인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 죽음, 부활, 승천, 세션,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 중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 심장, 영혼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책인 아들에 의해 성취된 구원, 그리스도의 사역을 썼습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의 구원 사건, 즉 그의 성육신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논하는데, 주된 초점은 물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에 대해 그린 일곱 가지 성경적 그림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화해입니다. 그것은 구속입니다. 그것은 법적 대체입니다. 그것은 *Christus Victor* 모티프 또는 승리, 두 번째 아담과 새로운 창조, 이 모든 것,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는 또한 희생적인 제사장의 그림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이 그의 9가지 구원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며, 그 핵심은 다시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요약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포함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3, 4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했는데, 제가 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3, 4. 더욱이 사도는 로마서 4:25에서 칭의의 근거나 근거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25.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지에 당황할 때 흔히 오류를 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요한 1서 4:8, 16).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요한일서 1:5.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의 거룩함이나 그의 사랑을 타협하는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성경적 그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섹션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원입니다.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이 그렇게 불의할 때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의 사랑으로 도덕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당화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가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로마서 3:25, 26. 긍정적으로, 그의 죽음은 의로움을 얻습니다, 로마서 5:18, 19.

이것들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전자를 다룰 것입니다. 성경은 네 번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25, 26, 히브리서 2:17, 요한일서 2:2, 요한일서 4:10에서와 같아요. 다시 로마서 3:25, 26, 히브리서 2:17, 요한일서 2:2, 요한일서 4:10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화해입니다. 로마서 3:25, 26은 가장 발전된 구절이기 때문에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7에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주제적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1:18에서 3:20까지 그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라는 또 다른 주제를 확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서 3:21의 서신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3:21.

모든 인간은 이 구원의 의로움이 없는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습니다(로마서 3:22, 23).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이는 구속(로마서 3:24)이자 화해(25, 26절)입니다. 이것은 화해에 대한 성경의 주요 본문입니다.

ESV에서 로마서 3:24~26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화해 제물로 내어놓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신성한 관용 가운데서 이전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서 그가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로마서 3:24-26). 하나님의 거룩함, 정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증거 에 비추어 볼 때 ,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키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답은

이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용과 자비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인용하여, 이전의 죄를 지나쳤습니다(로마서 3:25).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 속죄에 근거하여 구약 성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그들을 용서했고, 구약 성도들이 구약 희생에 대한 복음 메시지에 응답한 것에 근거하여 즉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비록 인용문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었지만, 인용문 닫기, 구약의 희생 의식은 복음을 묘사했습니다(히브리서 10:4).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도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희생으로 단번에 속죄해야 했습니다(히브리서 9:15). 하나님은 인용문에서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화해 제물로 내세우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로마서 3:25).

루터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곤경에 뛰어들어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무섭고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지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시는 것 외에는 죄책감과 분노에 대한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고 끝없는 진노와 죽음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루터, 서신 설교, 삼위일체 후 24주일, 마틴 루터의 소중하고 신성한 글이라는 책, 9권, 43~45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받을 만한 형벌로 그의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셨고, 이는 그가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로마서 3:2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화해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게 남아 계시면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공의롭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화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긍정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움을 얻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데 필요한 의로움도 얻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강력하게 대조하여 이를 제시합니다(로마서 5:18, 19).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있고,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의롭다 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로마서 5:18, 19).

바울은 먼저 아담의 한 번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한 번의 의로운 행위를 대조합니다(18절). 아담의 죄는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인용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정당화를 가져왔습니다(18절).

사도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순종,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빌립보서 2:8)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만들었습니다(로마서 5:19). 바울은 두 아담이 각자의 백성을 위해 정죄와 의롭다 함을 성취했다고 제시합니다.

Mu는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인용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어떻게 제공하셨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 의의 유익을 어떻게 확보하셨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절을 도덕적 범주로 해석했지만 Mu는 이것이 오해의 인용문이라고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늘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문 닫기. Mu의 로마서에 대한 서신 주석과 그 인용문은 3, 4, 3과 3, 4, 5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로 일관되게 제시하는데, 이는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부정적인 측면과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의를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믿음으로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수단은 물론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게 되는 것과 연결해 주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의 목적 진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울임체로 표시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다음 헬라인에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16, 17. 로마서 1:18에서 3:20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후, 바울은 그의 목적 진술로 돌아가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빠르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22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3:22.

바울은 화해를 설명할 때조차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3:25). 한 구절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인용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26절). 우리가 놓쳤을 경우를 대비해, 다음 다섯 구절에서 그는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저는 5장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이예요. 죄송하지만 3:25, 3:26이었고, 지금은 3:27에서 31까지예요. 그러면 자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배제됩니다. 어떤 종류의 법에 의해 배제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의 법에 의해 배제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결론내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십니까? 그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할례받은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지합니다(로마서 3:27~31). 바울은 로마서의 다음 장을 믿음에 대한 논의에 바치고 믿음과 은혜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로마서 4:16을 인용하면서 약속이,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따라 모든 후손에게 보증하기 위함이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라, 로마서 4:16.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1:6에서 더욱 강조합니다. 이제, 그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로마서 11:6).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과 행위는 상반됩니다. 은혜의 자연스러운 보완물은 믿음이며,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수단입니다. 칭의의 귀속,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그들은 그의 모든 영적 혜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결코 혼자 아니며, 믿는 죄인들은 단순히 칭의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은 거듭나고, 의롭다고 선언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평생 성장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되며,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따라서 칭의 자체가 도덕적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거듭남과 점진적 성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칭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로마 가톨릭 신학이 하는 것처럼 칭의를 변화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구원론적 범주를 혼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수단인 나쁜 일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단번에 받아들여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을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재판관으로 묘사하는 법정적 또는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남의 결과로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그의 백성의 삶에서 도덕적 향상을 이루시지만, 칭의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근거가 될까요? 답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귀속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게 무언가를 귀속시키는 행위입니다. 귀속은 은행 용어, 상업 용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귀속을 가르칩니다. 원죄의 귀속,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귀속,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를 인류에게 전가합니다. 로마서 5:18, 19.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아들에게 돌리신다. 인용문,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다. 고린도후서 5:21a.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돌리십니다 . 고린도후서 5:21을 완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아, 그 말씀을 완성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21하.

우리의 관심사는 세 번째 귀속에 있습니다. 이 귀속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한 구절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이언 비커스가 보여준 것처럼 세 구절의 조합에 근거합니다. 그의 책은 예수, 피,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바울의 전가 신학,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롭게 됨은 내가 편집한 성경 신학 탐구라는 시리즈에 실려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이 책에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세 구절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근거이며, 교리는 실제로 세 구절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4:3.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로마서 5: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19. 그리고 고린도후서 5:21.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3. 로마서 5:19. 고린도후서 5:21.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귀속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보상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돌아 봅니다 .

창세기 15:1.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그분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6.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하여 아브라함 과 다른 모든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의로움으로 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샅이 선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로마서 4:3~5.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돌리고, 인정하고, 간주하십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많은 죄인이 생겼듯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두 구절 모두 로마서 5:19에서 따온 것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전에 로마서 주석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를 돌리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나타나고 은혜의 경이로움이 밝게 빛납니다. 아담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으로 세상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써 아담의 죄의 해로운 결과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러한 돌려주는 것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Thomas Schreiner, *Romans*, 290쪽. 세 번째 구절은 정당하게 찬양됩니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용문,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을 스스로 취하셨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었던 것을 스스로 취하셨고, 내가 아니었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루터의 저서, 48권, 12~1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죄로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는 또한 죄를 위해 한 번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머레이 해리스는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주석 455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합법적인, 계산하는, 간주하는이라는 용어가 21절에서 29절과 비교했을 때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구절에서 이중적인 돌림을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계정에 기록되었고(21절 a), 의는 우리의 계정에 기록되었습니다(21절 b).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부적인 것, 즉 죄를 귀속시키신 결과로,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외부적인 것, 즉 의를 귀속시켰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이 귀속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신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의 가장 높은 목표는, 인용하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온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장, 9장. 이 세 가지 본문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최고 재판관인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에 따라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루터가 외래의 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를 인용하면,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밖에 있고 우리에게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붙잡힐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루터, 칭의에 대한 제3차 논쟁, 1536, 루터의 저작, 34권, 153쪽.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말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로마서 3:24).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 대하여, 인용문,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을 설명합니다(로마서 4:5). 그것은 루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항목으로 여긴 이유와 칼빈이 그것을 기독교가 돌아가는 주요 경첩 또는 주요 축이라고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 3권, 11장, 1단락.

다른 모든 성경적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무료 정당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결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정당화의 수줍은 여동생인 입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당화는 모든 언론의 관심을 받지만, 입양은 교회사에서 역사적으로 정당화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매력적인 교리입니다.

다음은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룰 개요입니다. 입양: 먼저 평소처럼 성경적 서론을 듣고, 그다음 입양, 체계적 공식화, 입양에 대한 필요성, 입양의 근원, 입양의 기초, 입양을 붙잡는 수단, 입양, 그리스도의 뜻과의 연합으로 체계적 공식화를 마무리합니다. 입양, 성경적 서론, 요약.

구약성경에서 입양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않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극적인 방식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대표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 입양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덕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이로움과 영광은 신약성경에서 기념되며, 우리의 아들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자들은 그들의 입양에 걸맞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그들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입양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현실이 아니다. 신자들은 지금 입양되었지만, 그들의 입양의 충만함은 신자들이 부활에서 새로운 몸을 부여받을 마지막 날에 성취될 것이다. 입양, 입양, 체계적 공식화, 체계적 공식화.

저는 방금 요약한 견고한 성경적 토대 위에 입양에 대한 체계적 신학을 탐구합니다. 이 필수적이지만 소홀히 여겨지는 가르침은 아마도 신약성서에서 가장 따뜻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짐 패커가 그의 유명한 책, *Knowing God*, 20주년 기념판, 201쪽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패커는 누군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고 싶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삶에 대한 그의 모든 관점을 촉발하고 통제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신약을 새롭고 구약보다 더 좋게 만드는 모든 것, 그리고 단순히 유대교와 대조되는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한 지식으로 요약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독교적 이름입니다.

입양의 필요성: 저는 구원의 적용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측면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입양의 필요성은 많은 대중적인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고아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저 고아일 뿐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구덩이를 파셨습니다.

입양의 필요성은 속박, 죄에 대한 노예 상태입니다. 구원의 적용의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입양은 인간의 필요성과 대조하여 가장 잘 이해됩니다. 우리는 타락과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죄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입양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를 했다고 말합니다(갈라디아서 4:3). 그리고 입양 후에는 각 신자에 대하여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상속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로마서 갈라디아서 4:7). 그러므로 입양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적용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을 아들과 딸로서 자신의 가족으로 영접하십니다. 요한은 바울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해지는 방식입니다.

존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특히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욱 그렇습니다(요한일서 3:10). 존은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두 가지 동등하게 관찰 가능한 그룹으로 나눕니다. 야브로는 존의 아이디어를 포착합니다. 인용문은 독자의 신성한 부모에 근거합니다. 존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마귀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인용문 닫기.

로버트 야브러, 요한 1-3서, 베이커 주해 주석, 196쪽. 구체적으로 요한은 옳은 일을 행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진정한 영적 혈통의 시금석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반영하는데, 요한은 아버지를 하나님은 빛이시며(요한 1서 1:5),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한 1서 4:8, 16) 설명합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른 방식, 즉 거듭남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의 해독제는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그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중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가족적입니다. 입양의 법정 이미지와 재생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의 산물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재생의 거듭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입양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입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입양의 수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믿음이 그 궁극적인 근원일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궁극적인 근원은 그의 뜻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5절과 11절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의 4절과 5절에 불과하며, 11절은 아닙니다.

여기 11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것을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이루신 그의 계획에 따라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11.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1:4과 5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아들됨의 배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용문, 그의 뜻의 목적과 일치하며, 인용문,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목적에 이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의 입양의 결과인 믿는 자의 상속은 구원하려는 그의 계획에서 따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들됨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서 찾습니다. 요한일서 3: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1. 입양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야브러가 주장하듯이, 인용하자면, 사랑의 위대함은 그 효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테크 나 당신 ,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위대함은 또한 그 목적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hina clause, John과 그의 독자들이 그의 가족적 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Yarbrough, 1 to 3 John, 196쪽.

입양의 근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죄의 노예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입양하셨습니까? 그는 그저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선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속박 상태에서 구속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 그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양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첫째, 그의 인격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 된 신자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본성상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창조의 주체를 아들에게 돌릴 때, 그것은 그의 영원한 아들됨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인용하자면,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구해내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좌든 주권이든 통치자든 권세든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13, 16.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용하자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그를 통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2. 더욱이 바울은, 인용문에서,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4.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은 그의 성육신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지만, 아들로써 영원히 존재했던 그는 성육신 당시에 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죄에 노예가 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입양에 상응하는 속죄 모티브는 구속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속박 상태, 대속물 값 지불,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상태입니다.

인용문: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처녀에게서 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입양을 받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 :4, 5. 같은 서신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아들의 구속을 더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인용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13. 우리 율법 위반자들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즉, 율법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위협하는 형벌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적 자유를 누립니다. 스토트는 이 본문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인용문, 이것은 아마도 대체에 대한 신약성서에서 가장 분명한 진술일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썼습니다.

깨진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저주가 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입양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며, 이번에는 그 수단인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정당화, 3번, 체계적 공식화와 입양, 1부입니다.